

IMF Survey

경제 건전성 점검

한국: 성장 동력의 확보

IMF Survey

2015년 5월 22일



서울의 한 상점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남성. 한국이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사진: 김홍지/Reuters/Corbis)

- 선제적인 정책들이 성장 동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구조적 개혁은 수출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확대할 수 있다
- 높은 가계 부채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시스템 위협이 될 것 같지 않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단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구조적 개혁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정기 연례 보고서에서,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에 대한 현재의 미약한 전망이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명확한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한국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수요 증가를 목표로 하는 최근의 정책적 조치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의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라고 IMF의 한국 협의단장인 브라이언 에잇큰(Brian Aitken)은 설명했다.

"따라서 선제적인 정책 기조를 추진하면 미약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으며, 공공 부채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정체된 성장 동력

한국의 성장 동력은 2014년 동안에 다소 정체되었고, 금년을 전망할 때, 부진한 내수, 낮은 인플레이션, 증가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의 성장이 3 퍼센트 범위에서 달성되고, 성장 동력이 금년 하반기부터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 년의 성장 전망은 지난 번의 평가 시에 예측했던 것 보다 악화되었고, 증가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에잇큰은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가 고도로 개방되어 있어 글로벌 역류에 직면하고 있고, 경제 전망은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석유 제품의 세계 최대 수입 국가인 한국은 낮은 유가로 인해 분명히 이익을 얻을 것이나, 이러한 유리한 상황이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통해서 성장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에잇큰은 설명했다.

주요 외부 위험에는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엔화가 한국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 상황의 부작용 등이 포함되나, 한국은 견고한 대외 완충 장치를 구축하여 재개되는 글로벌 금융 변동성의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강력한 금융 펀더멘탈

IMF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펀더멘탈이 비교적 강력하다고 시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스를 단기적인 시스템 위험의 원천을 제한한다. 이 보고서는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 공급과 유동성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가계 부채는 소득의 일부로서 지난 10 년 간 계속 증가해왔으나, 소비자들의 신중한 지출로 인해 가계 레버리지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 부문의 순자산 총액은 다른 많은 선진국들과 비슷하다. 부분적인 취약성이 상존하나(특히 일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는 금융 부문 안정성에 대한 시스템 위협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가계 부채의 구조는 강화될 수 있고, 중요한 문제점은 가구와 금융기관들이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모기지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업 부문의 대차대조표 총액은 건전한 것처럼 보이고, 완충 자본과 적절한 자기자본 적립을 통해서 직접적인 위험을 은행 부문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기업 투자는 많은 회사들이 대차대조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 성장에 대한 문제점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성장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수출을 넘어서 성장의 원천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을 당국들에게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동적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 시장과 다른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환영하나, 바람직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정치적 및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 향상을 유도하고,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과 병행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유도할 것이라고 요약했다.

관련 링크

[이 보고서를 읽어보십시오](#)

[iMFdirect 블로그: 경제 동력을 유지하는 한국](#)

[한국의 직장 여성](#)

[한국과 IMF](#)

[고령화의 대가](#)

[아시아 경제 전망](#)